

“배달앱·게임 등과 융합, 전통 금융 넘어 신한만의 혁신 필요”

진옥동 신한은행장 워크숍 개최
“유연한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 모색”
미래형 혁신점포 찾아 화상상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속도의 경제 시대를 맞아 발 빠른 변신을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옥동 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임원, 본부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스마트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일류(一流) 도약을 위한 신한은행의 King Pin은 무엇인가’였다. 신한금융그룹 경영포럼에서 제시된 핵심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이를 은행 사업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올해 신한은행의 전략목표는 ‘고객 중심! 미래 금융의 기준, 일류(一流)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스마트 화상방식으로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을 개최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의 도약’이다. 진 행장은 지난해 고객중심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한 ‘같이성장평가’와 그동안 강조해왔던 ‘과정의 정당성’과 ‘신의 성실’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2021년에는 고객중심 가치를 위한 추진력을 높여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소통을 통한 빠른 의사결정과 각 사업 영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

며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행장은 “현재의 상황은 규모의 경제를 지나 고객의 니즈가 수시로 변하는 속도의 경제 시대”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을 상대하려면 발 빠른 변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인 배달앱과 금융-게임을 융합해 혁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넥슨과의 제휴 등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금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행장은 책 ‘트렌드코리아 2021’의 내용 중 ‘거침없이 피보팅하라’를 소개하며 “한 쪽 다리는 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쪽 다리로 회전하며 다음 움직임으로 준비하는 ‘피보팅’ 처럼 금융의 본원적 경쟁력을 기본 축으로 삼고, ‘가설 설정-실행-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유연한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진 행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및 본부장에게 ‘디지털 리더십’ 관련 동영상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위기관리·민첩한 변화·조직소통·집단창조력·3차원 협상력 등 디지털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어 갈 수 밖에 없다”며 “미래 역량 준비는 생존의 문제이며 여기 계신 리더들이 변화의 판을 만들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행장은 이어 신한은행의 미래형 혁신점포인 서소문 지점 ‘디지털 브

랜치’를 찾아 직접 화상상담을 체험했다. 또 디지털 브랜치를 찾는 고객의 반응 등을 살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금융, 지속 가능한 같이 성장을 위한 변화에 대해서도 진 행장은 “변화의 기준은 명확하다. ‘고객을 위한 것인가’, ‘미래를 위한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실패도 혁신의 과정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며 “과거 큰 성공을 거둔 방식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어긋난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 행장은 1954년 우리 민족이 힘든 시기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색의 소를 그려내며 한국인의 강한 정신력을 강조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 ‘흰 소’를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2021년에도 우보만리(牛步萬里)처럼 우직하게 걸어간다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사 점유율 경쟁 심화... 1·2위 격차 3%p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 順
삼성카드, 내실경영 강화 ‘1위 맹추격’

카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드사별 점유율에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위인 신한카드를 맹추격 중인 삼성카드의 점유율 격차를 3%p포인트 내로 줄였다. 우리카드는 법인카드 실적에 힘입어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개인·법인카드 신용판매 취급액(일시불·할부)은 147조216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1.25%(31조23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 18.30%(26조9016억원) ▲KB국민 17.64%(25조9358억원) ▲현대 16.31%(23조9802억원) ▲우리 9.43%(13조8641억원) ▲롯데 9.34%(13조7364억원) ▲하나 7.73%(11조3683억원) 순이다.

1위를 뒤쫓는 삼성카드의 확장세가 두드러진다. 전분기에 이어 다시 한 차

(7개 전업 카드사 신용판매 취급액 현황)

	2019년3분기	2019년4분기	2020년1분기	2020년2분기	2020년3분기
신한	21.93%	21.76%	21.97%	21.33%	21.25%
삼성	17.50%	17.53%	17.67%	18.16%	18.30%
KB국민	17.36%	17.42%	17.71%	17.92%	17.64%
현대	15.91%	16.24%	16.28%	16.60%	16.31%
우리	9.43%	9.00%	8.68%	8.85%	9.43%
롯데	9.59%	9.78%	9.61%	9.37%	9.34%
하나	8.27%	8.26%	8.08%	7.77%	7.73%

*개인·법인 신용판매액 기준(구매전용 제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레 1~2위 간 격차가 2.95%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황이다.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은 21.25%로 전년 동기 대비 0.68%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21.97%에 다다르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듯 했지만 이후 같은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0.64%포인트, 0.08%포인트 낮아졌다.

그 사이 2위인 삼성카드가 점유율을 확장하면서 격차를 좁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9년 3분기 17.50%였던 점유율을 1년새 0.8%포인트 늘리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KB국민카

드와 점유율 순위가 바뀌기도 했지만 이후 점유율을 2분기 0.49%포인트, 3분기 0.14%포인트 확장하면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어온 내실경영 강화와 우량 법인 중심의 영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요기요와 출시한 제휴카드 등 언택트 부문 강화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점유율 경쟁 구도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영석 기자 ysl@

“내실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성장 기반 확보 ▲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 지속 가능한 핵심역량 강화 ▲ 미래 지향적 디지털 전환과 소통 등 네 가지 핵심 계획을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사진)가 “가치중심의 내실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GB생명은 지난 5일 2021년 시무식 및 경영전략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DGB생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시무식을 진행했다. 시무식과 함께 김성한 대표이사의 경영전략 설명회를 진행하여 전 임직원이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단합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성한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의 발표자로 나서 지난 2020년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1년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DGB생명의 2021 새해 미션을 ‘가치중심의 내실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정립하고 ▲판매 채널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한 내실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품과 채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변혁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K-ICS 등 제도시행에 대비한 자산운용 전략 실행, 장기적인 손익 확보 관점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업무 영역 전반의 디지털화 등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김 대표이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의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유례없는 변화 속도... 리스타트 필요”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박종복SC제일은행장(사진)은 “디지털 가속화와 코로나19 등으로 금융환경 변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며 “패러다임 격변에 신속히 적응하고 형식과 굴레를 벗어나 총체적으로 리스타트(Restart)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행장은 지난 5일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타운홀’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행장은 “은행 업무의 일부가 급부상하는 빅테크 산업으로 점차 이동되고 있다”며 “증권 비즈니스와 결합한 복합점포를 개설하고 SC그룹으로부

터의 향후 5년간 정보기술(IT) 신규 투자를 통해 디지털 역량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행장은 SC제일은행이 집중해야 할 목표로 ▲디지털뱅크 ▲중산층까지 확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글로벌 기업 금융 등 3가지를 정했다. 그는 “목표를 이루려면 마음가짐부터 형식과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Restart)해야 한다”며 “근무 복장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오래된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고하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BK기업銀, 효진오토테크에 60억 투자

IBK기업은행이 ‘IBK-KIP 성장디딤돌 제일호 사모펀드(PEF)’의 투자기업으로 효진오토테크를 선정하고 투자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60억원으로, 효진오토테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효진오토테크는 자동차 차체 정밀 가공·조립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13년부터는 탄소자원화 사업에도 진출해 플라스마 탄소전환 설비 개발에 성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동

차 사업 부문은 물론 제철소, 발전소 등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에서 탄소전환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탄소자원화 사업 부문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IBK-KIP 성장디딤돌’ 사모펀드는 지난 2017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 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